



대구 온 세계 육상스타들의 '기록 전쟁'

세계적인 육상 스타들의 화려한 '기록전쟁'. 2010 대구국제육상대회가 19일 오후 7시부터 대구스타디움에서 개막, 각 부문별 최고를 위해 양보없는 승부를 펼쳤다. 여자 1500m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컷오프 3명'... 피말리는 생존 경쟁

24일 한·일전 대비 '26인의 허정무호' 파주 NFC 재소집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기 위한 태극전사들의 '제2차 생존경쟁'이 시작됐다.

2박3일의 달콤한 외박을 즐긴 26명의 태극전사는 19일 오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다시 모여 오는 24일 일본과 평가전(오후 7시20분, 일본 사이타마)과 연이어 치러질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17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김남일(볼톱스크)이 가장 먼저 입소한 가운데 26명의 태극전사는 저마다 생존경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면서 속속 파주 NFC에 도착했다.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오른 발목을 다쳐 지난 17일 퇴소할 때 목발에 의지했던 김재성(포항)은 이날 목발 없이 등장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또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을 다친 이동국(전북)도 "남은 기간 회복에 집중하겠다. 빨리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23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선발의 마지막 선에 걸려 있던 선수들의 표정이 더욱 밝았다.

30명의 예비 엔트리에 3명이 탈락했던 수비라인에서 살아남은 김형일(포항)은 "대한민국 축구가 바라는 고지까지 점령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웃는 얼굴로 소감을 밝혔다.

발목 부상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김재성도 "처음 다쳐서 많이 놀랐다. 검사결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다"며 "솔직히 26명에 뽑힐 수 있을지 조마조마했는데 주치의와 코칭스태프 모두 안심시켜줘서 괜찮았다"고 말했다.

수비수 조영형(제주)도 "이제 월드컵 본선 무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어릴 적 꿈꿨던 무대에 설 가능성이 높아져서 영광이다"며 "축구는 경쟁이 필수다. 실수를 줄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를 비롯한 베테랑 선수들은 경쟁보다 한국의 첫 원정 16강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개인통산 세 번째 월드컵 출전을 준비하는 안정환(다렌 스톨)은 "솔직히 팬들의 큰 기대가 부담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한국이 16강에 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며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수도 있는데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게 은퇴를 앞둔 선수들의 심정일 것"이라고 미소를 지

었다.

박지성도 "오직 대표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 뛰겠다는 마음뿐이다"라며 "현재 대표팀은 잠재력이 충분하다. 항상 똑같은 각오로 대표팀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 이날 입소한 대표팀은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쓰일 대표팀 소개 책자 제작에 필요한 선수들의 사진을 찍고 나서 오후 훈련에 나선다.

대표팀은 파주 NFC에서 3박4일 동안 훈련을 하고 나서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과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



가자 16강!

19일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한국축구대표팀 포토데이 행사에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팀 타율 7위·홈런포 꼴찌

방망이 살리기 '특타훈련'

우천 연기 쉬는 날에도 구슬땀



군산에서의 시즌 첫 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된 18일, 경기는 하루 쉬었지만 KIA 타자들의 방망이는 쉬지 않았다.

KIA 타자들은 이날 오후 원광대 실내 연습장을 찾아 훈련을 했다. 투수들은 군산월명구장을 찾아 캐치볼과 러닝 훈련을 소화했다.

투수들이 경기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훈련이 종료되는 듯했지만 타격 연습을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느라 KIA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원광대에서 훈련을 한 타자들이 특타를 위해 경기장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프런트의 설명과 달리 이날 최고참 이종범과 종아리가 불편한 김성훈 등 야수진 전원 이 덕아웃에 짐을 풀었다.

지난해 타타를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KIA 타선의 부진은 여전하다. 지난 18일 현재 팀타율이 0.254에 그치며 전체 7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KIA 타선의 위력을 더해줬던 홈런포도 잠잠해 홈런부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방아울·피홈런·탈삼진 등 팀 투수 성적이 1·2위 권에 포진한 것에 비해 타자들의 성적은 각종 타격 부문 7·8위를 장식하고 있다. 투·타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KIA는 4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IA 타자들의

방망이가 쉴 수 없는 이유다.

시즌 초반의 답답한 타격양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훈련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조범현 감독이 처음 부임했던 2008년 선수들은 일반 훈련 스킴처럼 야간 훈련을 소화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수들이 선수를 친다'고 할 정도로 경기 내용의 방망이는 겨우 타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훈련을 한다. 휴식날도 훈련을 자처해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선수들도 있다.

최희섭은 "이종범·김성훈 선배가 앞장서서 훈련을 하니 당연히 후배들도 움직인다. 처음에는 훈련을 따라가느라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당연한 모습이 됐다"고 밝혔다.

4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최희섭은 나홀로 특훈을 하면서 타격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막내 안치홍도 그날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팀이 이긴 날에도 홀로 남아 배팅 훈련을 할 정도다. 아직 노력의 결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한편 롯데도 18일 군산중을 찾아 로이스터 감독의 지휘 아래 훈련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자율 훈련을 강조하는 로이스터 감독이 우천 취소된 날 훈련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는 게 롯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호시탐탐 4강 자리를 노리고 있는 5위 롯데가 시즌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4위 KIA와의 대결에 대비해 이례적인 훈련을 한 것이다. 비로 하루 경기는 쉬어갔지만 장외에서는 투·타의 불균형에 울상 짓고 있는 두 팀의 훈련 대결이 벌어졌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발기인대회

대표이사 박흥서 상의회장

19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민

프로축구단(가칭 광주FC) 창단 발기인 총회 및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FC 발기인 20명이 참석해 시민프로축구단 정관 및 발기인 주

식배정·납입,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흥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광주



FC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기영욱 광주시 축구협회 회장 등 16명이 이사로 등재됐다.

발기인들은 각기 50만원에서 500만원의 자본금을 내 9050만원의 법인 납입금을 마련했으며, 오는 26일 법인을 등록할 예정이다. 시민주는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IA 수도권 팬들 대상

광주경기 응원단 모집

KIA타이거즈가 수도권 팬들을 대상으로 광주경기 응원단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팬들에게 광주 경기 관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는 29일과 30일 한화전을 관

람하게 된다.

참가자들에게는 29일 숙박과 30일 조식이 제공되고 담양 죽녹원 및 메타세콰이어 관광, 순창 강천사 관광 등 광주 근교 문화 유산 답사도 실시된다.

모집 인원은 최소 30명에서 최대 40명까지로 오는 28일까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김여울기자 wool@